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가 오는데 이런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얼마나 오래 살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하는게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요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증거되면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중에 가면 순교를 합니다. 잡혔다는 말은 수동형이에요. 세례요한이 일부러 잡힌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세례요한이 잡힌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며 공적 사역이 정식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북방을 순회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헤롯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기에 잡혔고 순교한 것이지만 그 헤롯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4:12~16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거하시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낮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시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 중심이 아니라 갈릴리, 스불론 등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세리같이 천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아주 천하게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에게 까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의 영혼은 더 귀중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덜 귀중하고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얼굴이 검은 하얗던, 배우지 못했던 배우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민도 오고 일하러 오기도 하고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복음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얘기하지요.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데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라는 거예요. 때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다고 했지요. 이 때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암흑시대란 어둡다는 얘긴데 빛이 어디에 필요할까? 어둠에 필요하지 않아요? 밝은 곳에 빛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도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는 복음의 세밀한 것 까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이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도, 문화도, 정치적인 것들도 준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에 가장 합당한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 회개는 타락하고 부패한 옛 생활을 청산하고 마음과 생활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지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입니다. 우리는 자꾸 뉘우쳐놓고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랑 뉘우침은 달라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 회개에는 당연히 합당한 변화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가 없느냐? 뉘우침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로 배에 타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는데 닻을 내려놔요. 그럼 노를 양만 저은 듯 배가 앞으로 나가나요? 가만히 있잖아요. 닻을 끊어야 넓은 바다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리를 끊어버려야 주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건 생명입니다. 진실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으니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아무 상관없어요.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애써도 신앙은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뉘우침만을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6~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낚는데 /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은 베드로이지요.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따르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나온 ‘곧’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바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는 곧 바로 따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행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순종해야 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억지로 참고 인내하며 지체하면 무너집니다. 곧 바로 따르는 지혜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 물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배에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고기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버렸다는 건 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직업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 직업 버리고 교회오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제자들이 고기잡는 것, 직업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우선시 했다는 말이고 아버지를 배에 두고 왔다는게 부모 버리고 천국가라는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우선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게 먼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바쁘고, 처해진 상황이 어쩔고, 가족 때문에 어쩔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10:37~39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부모님도 공경하고, 가족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면 가족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며 아버지, 자식, 손자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우상이 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딸바보라는 말을 바로 하잖아요. 생각이 없어져요. 예수 바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바보가 되어하겠지요. 생각하고 계산하며 뜸 들일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첫째 계명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면서 늘 해야하는 일이 뭐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모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적이 없으세요. 이게 최고의 시험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아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족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시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뭘 입을지 뭘 먹을지 기도응답이 될지 안될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피흘리며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은 없고 실

천이 없으니 수십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예요. 생명의 특징은 변화와 성장과 열매입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게 살아있는 나무이지요. 살아있는 나무인데 하나도 변화가 안됐다? 말이 안되지요. 살아있는 나무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장하고 열매 맺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것 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도 뭘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보고, 닦아가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되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전도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삶의 훈련도 받고 겸손함도 배우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안됐었겠죠. 따라가야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도 배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배우고 그건 따라다녀야만 배울 수 있지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을 보면 닦아가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멋진 스포츠맨이나 탤런트 같은 걸 보면 따라하고 배워가는 것 처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형편에 안맞다고 좋은것만 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게 내 좋은 것만 할 것 같으면 날 믿지 왜 예수 믿어요? 믿는다는 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모든 걸 의지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발 한발 나아가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따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 따라가고 배워가고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다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화 받고, 구원받는 것에 쓰임 받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먼저 가장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서 따르면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진실로 직장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고, 동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